

사격 조정두, 한국선수단 첫 금

2024 파리 패럴림픽

P1 男 공기권총 결선서

237.4점 쏘 우승 차지

장애인 사격 권총 에이스 조정두(37·BDH파라스)가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조정두는 8월 30일 프랑스 사투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격 P1 남자 10m 공기권총(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 237.4점을 쏘 나머지 나르왈(인도·234.9점)을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처음이다. 메달 획득은 사격 R2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이윤리(49·완도군청)에 이어 두 번째다.

공기권총 결선은 총 8명의 선수가 출전해 먼저 10발씩 쏘고, 이후 두 발씩 사격한 뒤 합계 점수가 가장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한다.

조정두는 첫 10발에서 98.9점을 쏘 양차오(중국·100.6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후 조정두는 다소 흔들렸다. 11번째 발부터 15번째 발까지 5발 중 4발을 10.0점 밑으로 쏘다. 16발을 쏘는 때 순위는 3위, 1위 인도의 마니쉬 나르왈과는 0.9점 차이가 났다.

그러나 조정두는 무섭게 추격을 펼



8월 30일(현지시각) 프랑스 사투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P1 남자 10m 공기권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조정두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쳤다. 17번째 발에서 10.4점을 쏘더니 18번째 발에선 만점(10.9점)에 가까운 10.8점을 기록했다. 이어 19, 20번째 발에서 연속으로 10.3점 고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20발까지 198.9점으로 1위에 오른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23번째 발에서

10.8점을 쏘면서 2위 나르왈을 3.7점 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조정두는 복무 중이던 2007년 뇌척수막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증으로 척수 장애인이 됐다.

이후 8년 동안 슈팅 게임에 매몰되는 등 은둔 생활을 하던 조정두는 사격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19년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정상급 선수가 됐고, 이후 출전하는 대회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다. /뉴시스

女 해머던지기 최초 기록 썼다

익산시청 김태희,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 예선서 63m 45

대한민국 육상 간판 김태희 선수가 한국 여자 해머던지기 사상 처음으로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지기 기대준다.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여자 해머던지기 최초의 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이리공고 졸업 후 올해 익산시청 육상부에 입단한 김태희 선수는 이주형 익산시청 육상감독의 세심한 지도 아래 올해 국내 대회에서 8개의 메달(금3, 은2, 동3)을 획득하며 꾸준한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결선은 한국시간 9월 1일 오전 7시 40분에 열렸다.

정현을 시장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익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김태희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성추행 누명 억울” 호소했지만 피겨 이해인 ‘3년 자격정지’ 확정

스포츠 공정위, ‘성추행 혐의’ 이해인 재심의 기각

법률대리인 “가처분 신청·민사소송 진행”… 법정행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이해인(19·고려대)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했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0일 뉴시스를 통해 이해인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은 지난 5월 15~1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거로 파악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징계 당시 자신의 사물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성추행 혐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은 “징계 결정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공문으로 보내드린다”는 연락만 받았다고 하며 아직 기각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해인의 이번 성추행 논란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법률대리인은 “징계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과 (성추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U-20 여자축구, 월드컵 출격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축구대표팀이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에 출격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20 대표팀은 2일 오전 8시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 테초 스타디움에서 열릴 나이지리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치른다.

D조에 속한 한국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5일 오전 10시), 독일(8시 오전 5시)과 차례로 맞붙는다. /뉴시스

“체육계 개혁할 적기... 여론이 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축구협회 등 생각 밝혀

“대대적으로 새로운 정책·방법 등 제시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흥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포함된 대한축구협회의 여러 논란, 안세영(삼성생명) 폭로로 밝혀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문제, 병역 특례 혜택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달 30일 YTN 프로그램 ‘야놀라’에서 디지털로 모든 환경이 바뀌었다며 “제도적인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국도도 없다’ 이런 스타일은 체육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지난달 문체부는 흥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기초 조사를 진행했고 실제 감사

에 돌입했다.

또한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 이후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조사 중이다.

유 장관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이 체육계 정책을 개혁할 적기다. 국민 여론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대대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꽤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을 만들었고 모든 분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기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행처럼 큰소리를 치고 살았는데, 바뀌면 불안하지 않겠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해야 체육계가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워트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해임 과정도 그렇고, 승부 조작 사면도 그렇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며 “단순히 흥 감독 선임 하나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쌓여온 게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연임 도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장, 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장이 2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결정해 나름대로 정관과 내규를 바꾼 것”이라며 “근데 갑자기 올림픽 전에 이사회를 열어 바꾸려 했다. 그러니 밖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협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위에 군림하는 부처가 아니다”고 짚었다.

또한 유 장관은 꾸준히 찬반이 엇갈리는 체육계 병역 특례와 관련해 “이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올해 초부터 그 문제를 연구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아직 문체부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법을 바꿀 때는 됐다. 여러 대회를 통해 점수제로 하지는 의견도 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단 국위선양 한 사람에게 병역 특례는 특례대로 줘야 한다. 예술인과 체육인을 보호해야 하는 문체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달 31일까지 2024 파리 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뉴시스

2024 文化遺産 夜行

김제문화유산 야행

2024. 9. 13.(금) ~ 9. 14.(토) 18시~22시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주최 | 김제시 후원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문화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야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